

2022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하/반/기 특별새벽부흥회



영적회복을 위한  
비상의날개를  
펼치다

2022. 10. 24.(월) ~ 29.(금) 새벽 5:00

내 영혼의 풀 콘서트 10. 28.(금) 저녁 8:00

2차 특별토비새 11, 5, 12, 19, 26, 12, 3, 10 새벽 6:30

2022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하반기 특별새벽부흥회

## 출 · 석 · 표

목장/셀 (또는 부서) : \_\_\_\_\_ 이름 : \_\_\_\_\_

### 출석표 활용 방법

- 1 출석 스티커를 받으신 후 아래 해당 날짜에 붙이시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됩니다.
- 2 빠진 그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성문가족들께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6장의 스티커를 모두 붙이신 성문가족은 이 [출석표]를 잘 잘라서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그럼 특새 개근 명단에 등록이 됩니다.





# Contents

## 영적 회복을 위한 비상의 날개를 펴라!

**Day 1** 영적 피곤을 넘어 비상하라\_ 사 40:28~31 ... 4

**Day 2** 영적 두려움을 넘어 비상하라\_ 시 34:4 ...12

**Day 3** 영적 탈진을 넘어 비상하라\_ 왕상 19:10~13 ...19

**Day 4** 영적 고난을 넘어 비상하라\_ 잠 17:3 ...26

**Day 5** 영적 절망을 넘어 비상하라\_ 롬 8:28 ...33

**내 영혼의 풀 콘서트** 영적 회복과 비상을 위한 일곱 가지 원리\_ 눅 4:16~19 ...41

**Season 2** 2차 특별토요비전새벽예배 ...51

### | 예수님의 제자처럼 쓰임 받게 하소서!

- 11. 5 / (7) 의심을 넘어 귀하게 쓰임 받은 제자 <도마>\_ 요 20:24~29
- 11. 12 / (8) 사회적 지탄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 된 제자 <마태>\_ 마 9:9~13
- 11. 19 / (9)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제자 <작은 야고보>\_ 마 10:2~4
- 11. 26 / (10)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했던 제자 <다대오 유다>\_ 요 14:22~23
- 12. 3 / (11) 애국주의자에서 천국주의자로 변한 제자 <시몬>\_ 행 1:6~8
- 12. 10 / (12) 빈 자리를 채움으로 쓰임 받은 제자 <맛디아>\_ 행 1:21~26



## Day 1

### 영적 피곤을 넘어 비상하라

이사야 40:28~31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 1. \_\_\_\_\_ 의 원인을 발견하라.

미국 국립 정신건강연구소 원장을 지낸 바 있는 Dr. Bertram Brown의 발표에 의하면, 침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정서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쏟아붓는 의료비만도 매년 50억 불에 달합니다.

특히 생산성 저하, 의욕 결핍, 실직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몇 배나 더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80%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침체로 고생합니다.



침체의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만의 문제도 아니요, 미국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성경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포자기하여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댈 수 있습니까? 정답은 모세, 엘리야, 욥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침체(沈滯)는 보다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문제를 알리는 일종의 경고음이다.*

침체는 차의 경고등처럼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그 \_\_\_\_\_을 밝히는 일입니다.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1) \_\_\_\_\_ (모세의 문제)

육체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서 매주 숨 가쁘게 달려갈 때,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주위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_\_\_\_\_하려고 애쓸 때, 결국 침체에 빠져들고 맙니다. 모세는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왔습니다(민 11:10-17).

(2) \_\_\_\_\_ (엘리아의 문제)

걱정거리를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침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먼저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 두려움이 원인이었다면 당신의 염려와 우울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방치된 \_\_\_\_\_의 감정은 탈진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_\_\_\_\_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감정으로 치닫게 합니다. 엘리아가 겪고 있던 침체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왕상 19:1-18).

(3) \_\_\_\_\_ (욘의 문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고난이 일어날 때, 그 고난의 감춰진 의도를 모르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고난이 계속된다면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_\_\_\_\_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은 침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치료책입니다. 욘이 마침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큰 그림)을 깨달았을 때 침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다람

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_\_\_\_\_  
\_\_\_\_\_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 2. \_\_\_\_\_을 극복하라.

현대인들은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피곤에 지쳐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피곤을 경험하는 이유는 숨 가쁘게 이어지는 삶과 계속되는 일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피곤의 상태에서 산다면 다음과 같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태도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 자신의 수행능력이 제한됩니다.
-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피곤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육을 포함한 육체적 피곤(physical fatigue)과 감정을 포함한 영적 피곤(spiritual fatigue)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영적인 피곤이 더 우세합니다. 영적인 피곤은 스트레스와 걱정, 분노, 죄책감, 좌절, 우유부단함, 비현실적인 기대, 원한, 그리고 권태와 같은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육체적 피곤은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지만, 영적 피곤의 회복은 휴식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나 휴일을 통한 휴식만으로는 영적인 피곤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피곤을 극복하는 삶의 5가지 활력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_\_\_\_\_ 을 가지라

어떤 주유소의 선전 문구입니다. "엔진이 깨끗할수록 달리는 힘은 강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은 언제나 감정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  
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적인 피곤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2) \_\_\_\_\_ 으로 보라

다른 관점으로 당신의 일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주변 환경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스트레스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3~24).

(3) \_\_\_\_\_ 를 가지라!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되면 에너지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당신을 자극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4) 힘이 되어주는 \_\_\_\_\_ 해 일하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만나면 격려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함께 교회에 모여 매 주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면 칠면조와 함께 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5) \_\_\_\_\_ 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적으로 재충전 받을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특새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특새, 토비새, 주일예배 등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고 영적인 힘을 받아야 합니다.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 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위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28~31).



영적 침체는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질병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다시 일어설 힘도 용기도 간절한 마음조차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인

피곤과 두려움과 탈진, 그리고 고난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 영적 피곤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1) 마음에 남아 있는 죄책감은 우리를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회개를 회복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2)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영적으로 피곤해집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3)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느껴질 때 영적 피곤이 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십시오. (4)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힘을 빼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 있다보면 영적인 피곤함이 옵니다. 힘이 되는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 일하십시오. (5) 영적 재충전이 사라질 때 영적인 피곤이 몰려옵니다. 특새, 토비새,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등 영적 재충전을 위한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됨으로 영적 피곤을 넘어 영적으로 비상하는 날개를 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ay 2

### 영적 두려움을 넘어 비상하라

시 34: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 1. \_\_\_\_\_ 이 내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가는데 가장 크고 유일한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장애물은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_\_\_\_\_입니다.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4가지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1) 두려움은 당신의 \_\_\_\_\_ 을 마비시킨다.

두려움은 당신의 재능을 마비시키고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는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寶庫)와 잘 감당할만한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그 보고를 향해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두려움이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2) 두려움은 당신의 \_\_\_\_\_ 를 파괴시킨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히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상대방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의 실제 느낌마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시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당신이 가진 두려움은 당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두려움은 당신의 \_\_\_\_\_ 을 방해한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나는 나의 두려움을 영화에 옮겨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람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우리는 마음속으로 매번 두려움을 계속 곱씹습니다. 만약... 만약... 만약...?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침울하게 한다.”(잠 12:25 - 현대인의 성경) 당신은 얼마나 자주 두려움으로 인해 지칩니까?

**(4) 두려움은 당신의 \_\_\_\_\_ 을 방해한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보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 염려하면서 실패를 준비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2. 우리 문제에 깔린 \_\_\_\_\_ 을 발견하라.**

인생은 문제와 해결의 기회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두려

워하면 우리는 쓰러지게 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더 나아지고 진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 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문제들이 가져온 유익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단지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서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 문제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다섯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_\_\_\_\_ 하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십니다. 문제들은 종종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향 전환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고 계실 것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잠 20:30).



**(2)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_\_\_\_\_ 하신다.**

사람들은 차 봉지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당신의 신앙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약 1:2-3).

**(3)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_\_\_\_\_ 하신다.**

어떤 교훈은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뜨거운 난로는 만지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도 실제로 만져보고 테인 후에야 그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 돈, 인간관계 등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4)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_\_\_\_\_ 하신다.**

만약 어떤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다른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막아준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크리

스천은 그의 사장이 시킨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실직은 분명히 하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일 년 후에 비리를 통해 회사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5)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_\_\_\_\_ 만드신다.

문제들이 올바르게 대처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보다는 당신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 의지해 시작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시 34:4).

우리 삶을 갉아 먹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얽어맷니다. 결국 삶은 가라앉고 변화될 기회도 붙잡지 못하며 그대로 침몰하고 맙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어 비상하려면 우리의 문제들을 두려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들을 통해 (1)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2) 우리를 관찰하시며 (3) 교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 (4) 우리를 보호하시고, (5)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두려움을 넘어 비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ay 3

### 영적 탈진을 넘어 비상하라

왕상 19:10~13

“10.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날과 같은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갖가지 압력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인 에너지가 쉽게 소진되고 맙니다. 이러한 우울한 상태를 “탈진”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탈진은 당신의 삶에 어딘가 심각할 정도로 균형이 깨어졌

음을 알리는 필연적인 경고등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정서적인 혼란 속으로 빠져들까요? 바로 \_\_\_\_\_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생각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우울한 생각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탈진 가운데에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왕상 19장). 즉 엘리야는 그의 생애에 가장 커다란 성공을 경험한 직후, 최악의 탈진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된 생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범한 4가지 실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1. 탈진을 부추기는 \_\_\_\_\_ 들

### (1) 사실보다는 \_\_\_\_\_ 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따라서 그것은 사실임이 틀림없다.”라는 감정적인 추론을 함으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는 실패자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자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감정은 전혀 신뢰할만한 대상이 못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



수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중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난 후에 종종 부정적인 느낌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2) 자신과 다른 사람을 \_\_\_\_\_ 한다.**

이것은 물론 자기 패배의 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장점과 우리의 약점을 비교하고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단정 짓습니다. 또는 어리석게 자신에게 경멸적인 말을 내뱉으며 낙인찍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싫은 부분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3) 자기 실수가 아닌 것들로 인해 자신을 \_\_\_\_\_ 한다.**

엘리아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신의 실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까지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볍게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 못한 동  
기 부여입니다.

**(4) 부정적인 것을 \_\_\_\_\_ 한다.**

당신이 침체되어있을 때는 모든 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보입니다.

## 2. 탈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1) \_\_\_\_\_ 에서 벗어나라 :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께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쏟아놓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분출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쏟아놓건 간에 충격을 받지 않으십니다.

“4.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 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10.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왕상 19:4,10).

(2) \_\_\_\_\_ 이 필요하다 : 쉼의 중요성

하나님은 엘리야가 감정적으로 침체되었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엘리야에게 필요한 음식과 휴식 그리고 기분전환이 동반된 쉼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5.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왕상 19:5-8).

(3) 새로운 \_\_\_\_\_ 을 발견하라 : 새로운 초점의 중요성

당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돕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우시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13.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왕상 19:13,15-16).

우리는 계속되는 압박감과 책임감 속에서 탈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탈진을 부추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의 실수는 사실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자신의 실수가 아닌 것들로 인해 자신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을 과장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의 실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탈진으로 몰고 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먼저 (1)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감싸주십니다. 다음으로 (2)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쉼을 통해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 맞추

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을 세상의 문제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탈진으로부터 벗어나고 비상하는 날개를 펴는 영적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ay 4

### 영적 고난을 넘어 비상하라

잠 17: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 1. \_\_\_\_\_ 을 통한 비상

비행기를 타면서 어떻게 이런 큰 고철덩이가 쉽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떠오르도록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공기저항"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모순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과학적인 논리를 이해하고 나면 정말 이러한 물리적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다시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 또한 비행기의 솟아오름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_\_\_\_\_ 이 필수입니다. 약간의 모순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시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자리에까지 도착하는 데 수많은 걸림돌과 시험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러한 저항들을 통해 그 자리에까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_\_\_\_\_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24).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 그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라고 고백합니다. 막상 어려운 시련이나 시험 속에 있을 때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그 앞에 겸허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고통과 고난의 저항을 대할 때, 이러한 저항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 (2) \_\_\_\_\_ 하나님을 믿으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시 37:28).**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잠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저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 된 자들로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고 비상하며 승리하는 자리로 성큼 뛰어올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2. \_\_\_\_\_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십시오!

(1) \_\_\_\_\_ 를 얻은 사람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는 15년 동안 1천 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밝혀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둘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

셋째,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연구소는 결론으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 \_\_\_\_\_ 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있다.

혹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탄한 인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3) 고난의 순간에 \_\_\_\_\_가 임한다.**

고난은 어둡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은 어  
두운 그늘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평탄하기만한 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  
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의 광야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그런 경험들은 그  
들에게 어두움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4) 고난의 시간에 \_\_\_\_\_을 찾으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에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  
람들은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 깊어지고 강  
해졌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겪지  
않는 많은 시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미움을 받  
고 누명을 썼으며,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깊이 생각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5) 인생의 역경을 통해 \_\_\_\_\_를 발견하라.**

우리는 인생의 역경을 통해 진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역경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깊이 생각하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고난 속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잠 17:3).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항이 되지만, 반대로 날아오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저항에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를 인



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대하면 그 저항은 우리를 비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진주를 캐내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비상을 이룬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역경이 왔는가? 고난이 밀어 닦쳤는가? 이 저항을 타고 날아오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고난을 넘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으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연단하심으로 정금 같은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고난을 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ay 5

### 영적 절망을 넘어 비상하라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태풍, 물난리, 산불, 전쟁 등 최근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가족이 죽음을 맞았고, 집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었고 화를 당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망의 상황을 뛰어 넘고 영적

으로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봅시다.

## 1. 절망을 이기는 영적 원리

### (1) \_\_\_\_\_을 표현하라.

슬픔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 62: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 하시는도다”(시 34:18).

### (2) 다른 사람들의 \_\_\_\_\_을 받으라.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갈 6:2-현대인의 성경)

(3) \_\_\_\_\_ 을 선택하지 말라.

괴로워하던 평안을 누리든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그 날까지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 보지 못한다.”(욘 21:25-현대인의 성경)

1) 첫째로 바뀌지 않는 환경을 수용하고 \_\_\_\_\_ 께 집중해야 합니다.

“네가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 그때 너의 모든 괴로움은 빨리 흘러가는 물처럼 네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욘 11:13, 16-현대인의 성경)

2) 둘째로 잃은 것이 아닌 \_\_\_\_\_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 5:18-현대인의 성경)

3)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_\_\_\_\_ 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시 125:1-현대인의 성경)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사 26:3-현대인의 성경)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는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를 신뢰하기 때문이다.”(시 112:6~7-현대인의 성경)

**(4) 무엇이 \_\_\_\_\_를 상기하라.**

대부분의 절망은 돈이나 물질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물질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이나 물질은 잃어도 복구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았다면 큰 것을 건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절망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눅 12:15-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딤후 6:7-현대인의 성경)

**(5) 주님을 \_\_\_\_\_하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든 시기에 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1) 주님의 \_\_\_\_\_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렘 29:11-현대인의 성경)

2) 구원하심을 \_\_\_\_\_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매우며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시 46:1~3-현대인의 성경)

2. 진정한 \_\_\_\_\_의 근거

(1) 하나님의 \_\_\_\_\_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아가면서 불행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우리를 강타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그 불행을 이겨 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암실에서는 음화(陰晝)가 양화(陽晝)로 바뀝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계 속에 들어가면, 율화가 할렐루야로 바뀝니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자녀에겐 복이 됩니다.

**(2) 약속의 말씀 중 \_\_\_\_\_ 을 마음에 심고 품으라.**

영어 원서의 제목이 “The Promise”인 책,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을 요모조모 따져보는 책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보석과 같이 빛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낙관론 철학을 폭넓게 연구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셸리그만 박사는 낙관론이 정신건강에 필요하긴 해도 때로는 그것이 “현실을 거스르는 방어막”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낙관론이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목표가 아니라 보증서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 주었으면, 하는 낙관적인 희망 사항이 아니라 \_\_\_\_\_ 가 담긴 막대기입니다. 세상 낙관론과는 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입니다.

**(3) 우리의 \_\_\_\_\_ 와 하나님의 \_\_\_\_\_ 을 인정하라.**

인생은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히브리어처럼 인생도 거꾸로(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 5년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일이 우리에게겐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

과, 연쇄 반응과 파급효과, 현재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모든 수를 날 낚이 읽고 계십니다.

**(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이 아니라 \_\_\_\_\_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을 수천 곡 쓴 때니 크로스비는 의사의 오진 때문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먼 것이 의사의 과실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행운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을 바라서도 안 되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었다고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운이란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섭리입니다.

A. 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한 사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미리 정해 두신 길을 걸어간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악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라는 비밀 각본을 해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으로 움켜쥐어보십시오. 프레드릭 페이지의 말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불행이라도 우리의 유익이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한 것은 유익이라도 우리의 불



행입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달콤한 뜻이라면, 모두 다 옳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절망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상황을 넘어 비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슬픔을 감추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괴로움을 선택하지 말고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상기하여 진정한 상실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낙관론은 세상적인 낙관론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낙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은 그 중 빛나는 보석입니다.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낙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절망에서도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내 영혼의 풀 콘서트

### 영적 회복과 비상을 위한 일곱 가지 원리

눅 4:16~19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당신의 삶과 스케줄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이 그분이 누리셨던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반대와 끊임없는 요구들, 그리고 극히 제한된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삶은 균형 잡혀 있었고 그 분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스타일을 세심하게 관찰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영적 회복과 비상을 위한 일곱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1. \_\_\_\_\_ 의 원리 : 당신이 누구인지 알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예수님께서는 18회에 걸쳐 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틀 속에 맞추어 가도록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2. \_\_\_\_\_ 의 원리 : 누구를 기쁘게 하기 원하는지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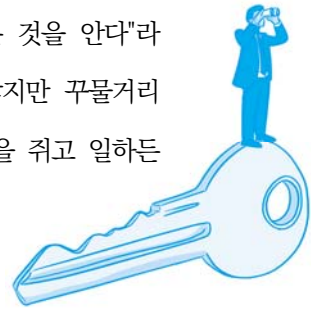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요 5:17).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순간 바로 B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압박감을 줄 수 없습니다.

### 3. \_\_\_\_\_ 의 원리 :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요 8:14).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압박을 받지 않지만 꾸물거리게 되면 떠밀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우선권을 쥐고 일하든지 아니면 압박감에 밀려 일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4. \_\_\_\_\_ 의 원리 :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라!

“42.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눅 4:42~44).

당신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일차적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방해물 다룬다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 5. \_\_\_\_\_ 의 원리 :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막 3:14~15).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느낄 때 긴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완벽주의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십시오.

## 6. \_\_\_\_\_ 의 원리 :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얼마나 바쁘냐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서는 매일 홀로 기도할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시간"은 훌륭한 스트레스 감압실(減壓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당신이 겪는 압박감과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고, 당신의 우선권을 평가하고, 성경에서 성공적인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용하십시오.

## 7. \_\_\_\_\_의 원리 :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켜 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6~19).

### (1) 한 명이라도 \_\_\_\_\_을 품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길버트 빌지키언 교수는 강의 전에 사도 행전 2장 40-47절을 읽어주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도전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앞으로 교회를 담임하더라도 늘 살아있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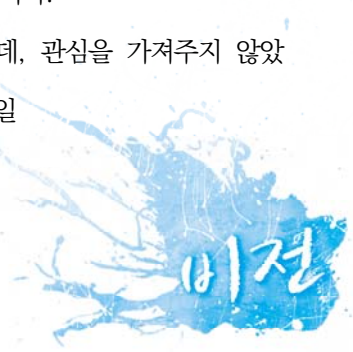
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도록 수업 때마다 상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교실에 20대의 젊은 빌 하이벨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길버트 교수가 성경을 읽어줄 때마다 빌 하이벨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 하이벨스는 길버트 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제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시카고 지역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길버트 교수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빌 하이벨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를 돕겠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길버트 교수는 빌 하이벨스의 멘토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회상하면서, 길버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을 넘게 그 비전을 강의 때마다 나누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해에도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빌 하이벨스라는 학생이 처음으로 그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지요.”



**(2) 꿈을 가진 사람이 \_\_\_\_\_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지 바나(George Barna)가 미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과 2%정도 만이 꿈을 가진 리더였고 나머지 98%는 그저 평범한 지도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의 미국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자들로 정평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젊은이들과 신앙인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사회가 패배주의에 허덕일 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더 나은 교회 더 많은 사역을 창출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Visionary(비전적)”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Ordinary(평범한)”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느 편 사람을 더 지원하고 이끌어 줄까요?

**(3) 꿈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현실을 \_\_\_\_\_을 가집니다.**

꿈은 단순히 미래의 성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그라민(Grameen)’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만 하더라도 이 은행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은행으로, 42명에게 27달러를 빌려준 실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대출실적으로 은행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은행장이 취임하면서 완전히 다른 은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175개의 지점을 두게 되었고 240만 명에게 1,600억 다카(약 3조 3600억 원)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직원 수도 12,000여 명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이 이 은행을 이토록 성장시켰을까요? 다름 아닌 야누스 은행장이 주어진 환경을 '재해석'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꿈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빈곤에 처해진 나라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가난은 자선으로 퇴치되지 않는다. 가난은 나태함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원들에게 자산이 없는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자본을 빌려주게 했습니다. 당시 은행 상황으로는 나라느커녕, 자신의 은행조차도 가난에서부터 헤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 있던 자국에 대한 비전적인 생각 하나로 그라민 은행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생각의 씨앗은 방글라데시를 거국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했으며, 결국 그 일로 유누스는 2006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4) 꿈은 삶의 \_\_\_\_\_ 을 잡아줍니다.

비전이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매일을 건디고 힘겨워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동기를 유발하고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힘을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현실을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용기와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냉엄하고 혹독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만들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겨진 꿈과 비전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신령한 꿈을 키우고 꿈의 실현을 위해 한평생 성실하고 진실하게 뛰는 사람만이 꿈을 가진 성도요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부디 이번 특새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붙잡고 힘 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절망과 낙심,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자포자기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할 때가 많 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더 압박 받으셨고 반대가 거셨고 온갖 루머와 악한 공격,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그늘로 가득한 삶

을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이겨내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셨고(정체성의 원리), (2)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지 분명히 아셨으며(헌신의 원리), (3)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셨고(우선권의 원리), (4)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집중성의 원리). 또한 (5)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고(위임의 원리), (6)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셨습니다(묵상의 원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7)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습니다(비전의 원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꿈이 없는 평범한 삶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저럭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지니고 영적 회복을 위한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수님의 제자처럼 쓰임 받게 하소서!

## (7) 의심을 넘어 귀하게 쓰임 받은 제자 &lt;도마&gt; \_ 요 20:24~29

“24 <도마가 의심하다>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8) 사회적 지탄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 된 제자 <마태> \_ 마 9:9~13

“9 <마태를 부르시다(막 2:13-17; 눅 5:27-32)>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제자 <작은 야고보> \_ 마 10:2~4

“2 <열두 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막 6:7-13; 눅 9:1-6)>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0)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했던 제자 <다대오 유다> \_ 요 14:22~23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1) 애국주의자에서 천국주의자로 변한 제자 <시몬> \_ 행 1:6~8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 빈 자리를 채움으로 쓰임 받은 제자 <맛디아> \_ 행 1:21~26

“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24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 교회여 일어나라

전은주

A D Esus<sup>4</sup> E A D Esus<sup>4</sup> E

교회여 일어나라 - 주께서 부르시니 - 우  
교회여 일어나라 - 주께서 보내시니 - 우

D A/C# Bm F#m/A# Bm E 1. A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릴부분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2. A Dmaj7 A

우린 세상의 빛 -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Bm<sup>7</sup> D/E E

주의 교활 통해 -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  
나타내는)

A E/G#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 아버지 능력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 아버지의 크심

F#m F#m/E Dmaj7 1. Esus<sup>4</sup> E

로 -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  
을 -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2. Esus<sup>4</sup> E<sup>7</sup> A

라 - 일어나라 -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대한 예수교장로회 담임목사 **고동훈**

(07969)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4길 9

T. 02-2646-3181

F. 02-2646-3184

[www.holygatechurch.org](http://www.holygatechurch.org)



주일설교



CBS설교

